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 1994년도 표어 ◎

성령과 말씀이 충만한 사도적 교회

◎ 생활지침 ◎

- 1. 거듭난 사람
- 2. 성숙한 신자
- 3.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천국시민

발행인: 이종윤 발행처: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165-18 전화 / 517-7651 ~ 5 팩스 / 512-1225

설날, 가족이 모여 함께 드리는 예배

1. 메시지

“감사하는 후예들”

시편 133:1 - 3

이 세상에 사는 많은 사람들은 아름다운 것을 찾아 그것을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아름다움이 때로는 선하지 못하고 추한 경우를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가장 아름답고도 선한 것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오늘, 우리는 흩어져 있던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선한 일을 우리가 실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설날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는 귀한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가 되었음을 감사해야 합니다.

설날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점치는 곳으로 발걸음을 옮긴다고 합니다. 일년의 운수를 미리 알아보기 위해 두려움 속에서 이곳을 찾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가 되어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얼마나 귀한 일인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길을 아시는 하나님께 일생을 맡기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 속에 오늘을 맞고 있는 것과는 달리 믿음으로 순례자의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것 자체에 대해서 하나님께 깊은 감사를 드려야 될 것입니다.

둘째, 가족간의 사랑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것에 대해 감사해야 합니다.

육신적인 형제들이 동거하는 것이 항상 아름다운 것만은 아닙니다. 때로는 시기와 질투가 생겨 피차간에 어려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 마음이 되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함께 사랑을 나누며 기쁨이 넘치는 가정 그 자체가 큰 행복인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요일4:20, 21).

셋째, 성령님의 교통하심을 감사해야 합니다.

아론에게 부여된 기름은 대제사장으로서 성직을 위임하는 기름이었고 모든 죄악으로부터의 구별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형제간의 연합은 이 거룩한 삶이 함께 영위될 때에 가능합니다. 또한 기름이 뿌려질 때에 향기가 진동한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랑으로 결합된 형제들이 이스라엘 민족 축제 때에 한 곳으로 모이게 되면 그것은 귀한 향료가 섞여져 풍겨나는 보배롭고 거룩한 기름이 아론의 머리에서 그의 수염으로, 수염에서 그의 옷 끝으로 흐르는 것과 비슷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멀리 떨어져 있어도 성령으로 하나됨

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성령님의 역사로 형제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거룩한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형제간의 화목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이요 기름의 향기가 온 주위에 퍼지듯이 세상이 흠모하는 아름다운 일입니다.

넷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지방은 비가 거의 오지 않아 이른 비와 늦은 비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수목들이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밤에 흠뻑 내린 이슬 덕분입니다. 이슬은 소생과 비옥케 하는 힘이 있어 그 이슬로 인하여 많은 수목들이 힘차게 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온 가족이 한 자리에 모인 것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이슬이 내리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일하는 직장 위에, 가정 위에, 각자의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의 이슬은 언제나 함께 하셨습니다. 내 능력, 내 지혜, 내 경험으로 살아온 것이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음을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영생의 복을 소유했음을 감사해야 합니다.

설날을 맞이하여 많은 사람들이 조상에게 절을 하며 복을 구합니다. 죽은 조상에게 절하며 제사하는 것은 우상숭배와 같은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 온 가족이 모여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형제간의 화목을 확인하는 것은 복 중의 복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더욱이 우리에게 영생의 복을 약속해 주셨고, 그 나라를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는 이 어두워진 시대의 그루터기들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영생의 복은 빼앗길 수 없는 매우 귀중한 복입니다. 이 놀라운 복에 참여하고 있으니 하나님께 대한 뜨거운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형제간의 화목과 연합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며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받는 것입니다. 이번 설날에 우리는 우상숭배하는 어리석음에 빠질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형제간에 우애하고 연합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하며 감사하는 시간이 되어야 하였습니다.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은혜의 이슬을 흠뻑 마시는 아름답고 귀한 설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조상들이 남긴 유산을 우리 후손에게 물려주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후예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2. 예배 순서

인도: 가족 중 어른

묵도		다함께
성시	 시 128:1-6	인도자
찬송	 305	다함께
기도(또는 사도신경)		가족중(다함께)
성경봉독	 시 133:1-3	인도자
설교	 “감사하는 후예들”	인도자
찬송	 453	다함께
주기도		다함께

창세기강해



이 중 윤 (목사·당회장)

가장 오래 산 사람

(창세기 5장 25 ~ 27절)

인류 역사상 가장 장수한 므두셀라에 대한 말씀이 짧은 석줄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간 생명이 하나님 손에 있는 것이라면 분명히 구백 육십 구세를 산 므두셀라에게 특별한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입니다.

1. 이름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

히브리어 어원을 살펴보면, '므두셀라'라는 이름에는 죽는다는 뜻의 '므두'와 보낸다는 뜻의 '셀라'가 합쳐진 것으로 "그가 죽을 때 그것을 보낼 것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므두셀라는 라멕을 낳았고 라멕은 노아를 낳습니다. 므두셀라의 후손인 노아 때에 이르러서야 홍수 심판이 오는데 므두셀라가 죽을 때까지는 홍수 심판을 연기하셨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가 죽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약속된 홍수 심판이 올 것이라는 것이 므두셀라의 이름 속에 담겨진 의미입니다. 그 이름을 누가 지었는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그 이름을 지은 것인지, 신약적인 근거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알 길이 없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므두셀라의 생명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구백 육십 구세까지 연장되었다는 것입니다. 므두셀라가 팔백 오십세 때에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방주를 짓도록 명령하셨습니다. 노아는 120년이라는 긴 세월동안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가운데 좌절하지 않고 순종하였고, 결국 방주는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홍수 기간 동안의 먹을 것과 필요한 모든 것, 모든 생물체가 다 들어가게 된 후 방주의 문이 닫히고 홍수가 시작되는 바로 그 순간에 므두셀라는 구백 육십 구세를 일기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세상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 심판의 산 증인인 것입니다. 눈이 정결하시사 악을 참지 못하시는 하나님(합1:13)께서는 인간 세상에 죄악이 관영했을 때에 그것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고 후에 홍수로 땅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또한 그의 아버지 에녹이 므두셀라를 낳는 그 시간부터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니 므두셀라는 하나님의 계시를 따른 그의 이름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음을 우리에게 제시해 줄 뿐만 아니라 부모에게도 복된 자식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 인내하시는 하나님

므두셀라는 심판의 증인만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의 산 증인입니다. 신약시대에 베드로는 이 노아 홍수 때를 "주의 약속은 어떤이의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라고 주석했습니다(벧후 3:9).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준비가 안되었거나 우리들이 심판 받을 죄를 짓지 아니했기 때문에 오늘의 심판을 연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택하신 사람 중 하나도 멸망치 않고 회개하여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려고 인내하시는 가운데 심판을 연기시키고 또 연기시키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에 제자들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여기 서있는 사람들 가운데 내가 다시 오는 것을 볼 사람이 있다"고 하셨는데 다시 오신다는 말씀은 주의 재림을 의미한 것이 아니고 주의 부활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다시 살아 나셨는데 그들은 까맣게 그것을 잊어버리고 주님이 다시 오실 줄만 알고 있었습니다.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뇨 모든 것이 처음과 다른 바가 없지 않은가"하고 사람들이 힐문 한다고 했습니다(벧후 3:4). 마치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에 아무도 그의 말을 믿지 아니했던 것처럼 베드로 당시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러합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심판의 주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지만 우리들은 종종 세상의 연락에 빠져 주님의 재림을 찬송가나 말로만 하고 있을 뿐 이 말씀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베드로는 이 문제에 대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부러 잊으려 함이로다"(벧후 3:5)고 대답을 해 주며 사도 바울도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롬1:28)라고 하였습니다. 이런 사람에게서는 그리스도의 강림이 전혀 상관없는 것으로 받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므두셀라의 이름의 뜻을 노아시대 사람들은 일부러 잊으려고 했습니다. 오늘날도 이 불신앙의 많은 사람들이 합리적이고, 지적이고, 논리적인 사고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부인하려고 합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주의 재림이 전혀 무관한 것입니다. 사도 베드

로는 심판을 연기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총을 오히려 악용하는 자들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인간 편에서 볼 때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먼 것 같아 보일런지 모르나 하나님의 시간은 지금 무섭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종말을 흔히 개인적 종말과 우주적 종말로 구분하여 말하는데 개인적 종말이 언제 우리에게 다가올지 모릅니다. 또한 주님께서 심판주로 오실 우주적 종말도 오늘 밤이 될런지 내일 새벽이 될런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벧후 3:10)고 경고하신 하나님께서는 노아 때에 이미 물로 심판 하였고, 마지막 날에는 불로 심판을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날에는 감추고, 숨기고 거 짓말 한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모두 드러날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도 베드로는 "그런고로 너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벧후 3:11)라고 도전합니다. 노아시대에 사람들은 므두셀라가 죽을 때에 심판이 올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다가 물심판을 받고 말았습니다. 오늘날도 주님은 "너희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날도 속히 회개하고 방주로 향해 가는 그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을 생각하며 우리 모두 심판날에 영광의 찬송을 부르며 기쁨으로 영광의 주님을 영접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 순례자 컬럼 ✦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기독교인에게 주어진 이상은 매우 높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처럼 우리도 완전해 지기를 기도하는 것이다. 우리는 지나간 일들을 회상하면서 과거에 매여 있을 수만은 없다.

종교개혁자 루터는 "기독교인이라는 말은 기독교인이 되었다는 말이 아니고 되고 있다는 뜻이다. 기독교인이 되었다고 하는 사람은 벌써 기독교인이 아니다"라고 하였다.

선 줄로 아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고 한 번 넘어진 자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지도 말아야 한다. 항상 완전을 향해 쉬임없이 미래지향적인 전진을 하는 것만이 성도의 걸음이다.

'은퇴(retire)란 타이어(tire)를 다시(re) 걸어 끼우는 것'이라고 말한 이가 있다. 멋진 표현이다. 우리는 늦게 성숙해서 일찍 늙어버리는 폐습을 벗어나 버릴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 순례자 캠페인 ① - 비른 예배드리기 ◆

1. 5분 일찍 오기
2. 앞자리부터 앉기
3. 먼 곳부터 주차하기
4. 드리고 받는 예배
(예배순서와 그 의미)
5. 가정예배 드리기

빨간색 유니폼은 우리 교회 안내위원의 상징이다. 안내위원들은 예배시작 30분 전부터 정해진 위치에서 여러 모양으로 안내를 한다. 모든 성도들이 경건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음향실과 강단 상태를 살피고 예배실에서 자리를 안내할 뿐 아니라 교회입구에서 주보를 나누어 주고,

엘리베이터의 운행과 노약자들의 승강을 돕는 일도 안내위원들의 몫이다. 현재 40여 명의 안내위원이 있지만 주일에는 다섯번의 예배 때마다 이와 같이 곳곳에서 안내를 해야하므로 그 인원이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한 명의 안내위원이 여러번의 예배에 겹쳐서 봉사할 경우도 많다.

한 번의 예배 때마다 최소한 50분은 서서 안내를 해야하므로 다리가 부어오를 정도의 힘이 든 일이기도 한데 그 보다 '내 자리'를 고집하는 성도들이 안내에 따라주시지 않는 것이 더 힘든 일이다. 앞자리부터, 그리고 안쪽부터 차례대로 앉는 것은 나와 다른 사람이 함께 경건히 예배 드리기 위해 꼭 염두에 두어야 할 일이다.

앞줄부터 앉도록 유도하는 일에 응하지 않을 때와 마찬가지로 소지품으로 자리를 차지할 경우, 다른 사람과의 잡담으로 다른 성도들의 예배와 기도를 방해하는 경우, 승강기가 이미 정원을 초과했음에도 타기를 고집할 경우에 안내위원들은 어려움을 느낀다.

의자의 뒷면에 부착해 놓은 가방 걸이를 이용해 소지품이 자리를 차지하는 일이 없도록 하자. 예배실에 들어 오면 경건한 마음으로 조용히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다른 사람의 기도와 예배에 방해가 될만한 말과 행동을 삼가자. 우리 교회당 승강기의 정원은 6명이니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단을 이용하고 안전한 운행을 위해 정원이 넘지 않도록 하며 노약자들에게 먼저 양보하자. 예배실에서도 예배의 진행을 맡은 목사님, 장로님, 헌금위원들이 지나는 자리를 잘 살펴 동선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자.

함께 예배드리기에는 좁기만 한 예배실에서 새 성전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는만큼, 나보다는 먼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생각할 줄 아는 성숙한 신자가 되는 일도 힘써야겠다. 그것은 아주 작은 일을 실천하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다.



◆ 생활속의 이야기 ◆

내게도 이런 일이

장 애 희 (권사, 제 1교구)

은행에서 걸려온 전혀 뜻밖의 전화내용 때문에 밤잠을 설쳤다. 내 이름과 전화번호, 주민등록 번호를 이서하고서 사용한 수표가 사고 수표였다는 것이다.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고 더욱이 이웃집 여자로부터 받은 것이라는 표시를 분명히 해 두었건만 그녀는 오히려 내게 화를 내며 교회다니는 사람이 거짓말을 한다고 입에 차마 담기 어려운 욕까지 해대는 것이었다.

일단은 하나님 앞에서 나의 물질 생활에 오점이 없었는지 두려운 마음으로 돌아보았다. 십일조는 철저히 한 것인지, 혹은 헌금 드리는 일을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는 않았는지... 알고 모르는 가운데 물질 생활에 잘못되었던 부분을 회개하며 모든 것의 소유권과 회수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새롭게 깨닫게 되었다. 하나님께서는 내게 십자가 위에서 인류의 죄사함을 간구하시던 예수님과 자기를 돌로 치는 자를 향해 복을 빌던 스테반 집사의 천사와 같았을 얼굴을 생각나게 하심으로, 분하게만 여겨지던 이웃집 여자에 대한 내 감정도 치유해 주셨다.

다음 날, 그 수표를 신고한 사람을 찾아 보니 마침 우리 교회 교인이었다. 얼마 전 도난을 당해 신고한 수표 중 하나가 돌고 돌아 내 손에 오게 된 것이었다. 우리는 손을 잡고 그간 당한 정신적 물질적 피해에 대해 서로를 위로하며 하나님을 모르는 이웃집 여자와 남의 것을 탐하고 도적질한 불쌍한 영혼이 주님을 알고 구원받게 되기를 함께 기도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풍성히 채우시는 하나님 앞에서 물질로 인해 시험에 빠지는 일이 없기를 간구하였다. 무엇보다도 모든 일을 통해 더 정결한 삶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크게 감사할 수 있었다.

만원자리 지폐 앞에서의 기도

주여,
이 지폐는 몇 사람의 손을 거쳐 왔을까요
그 긴 침묵의 여행에서
대관절 무엇을 해 왔을까요
그것은 어쩌면 그렇게도 무거울까요
인간들은 그것을 몇 시간 소유하기 위해
많지 않은 즐거움과 기쁨을 보태기 위해
자기를 배신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사랑하는 연인에게
장미를 선사하기 위해,
세례 받은 아가에게 줄
축하의 사탕값을 치루기 위해,
내일의 식탁에 빵을 준비하기 위해
사용되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매로 젊은이들에게는 웃음을 일으키고
늙은이의 마음을 즐겁게 하였을 것입니다.
이것은,
의사에게 왕진 값으로 지불되고
아이들의 책을 사기 위해,
귀여운 아가씨들의 드레스를 사기 위해
사용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약혼 파기의 슬픈 편지의 우표값도 되고
죽은 아이를 낳는 수술비용으로도
지불되었을 것입니다.
고주망태의 술값으로도,
미성년자들에게 해로운 영화제작에도,
범죄에 사용할 흥기를 사는 데에와
죽은 사람의 관을 사는 데에도
사용되어 왔을 것입니다.

주여, 저는
이 지폐를 당신 앞에 바칩니다.
그 기쁨의 숨은 사연과
그 슬픔의 숨은 사연들과 함께
그것이 가져다 준 시는 기쁨의 연고로
감사를 드리며
그것이 저지른 악덕을 연고로
당신의 용서를 빕니다.

그러나 주여,
그보다 더
인간의 온갖 노고의 상징으로서
이 돈을 당신께 바칩니다.
그것은 머지 않아
당신의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여
불멸의 보배로 변해갈 것입니다.

- 미셸 퀘스트 -

브니에
하나님의 얼굴

그러나 폭력은 안된다

민 주주의의 꽃은 자유라는 나무에 핀다. 그토록 자유와 민주를 갈구하고 외쳐 온 우리들은 민주주의를 오래 향유해 온 서구 제국들과는 또 다른 의미에서 이를 소중히 가꾸고 지켜야 한다. UR 타결에 따른 농산물 시장 개방이 당사자인 농민들에게는 최대관심사이고 농민 단체들이 전체 농민의 의사를 시위를 통해 표현하는 것을 닦할 사람은 없다. 그러나 우리가 본 대로 그것은 이미 시위가 아닌 한풀이 하는 폭력의 장이 되고 말았다.

아무리 목적이 훌륭하다 할찌라도 폭력의 수단을 동원했을 때 그 선한 목적은 퇴색하고 말뿐 아니라 주어진 자유를 스스로 포기하고 마는 것이 된다. 어떤 이유에서건 폭력이 난무하는 시위문화는 이땅에서 사라져야 한다. '시위 = 폭력'의 등식이 성립하는 한 우리의 자유는 다른 부자유를 초래할 것이다.

다수의 의사가 지배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지배하는 다수가 폭력은 것은 아니다. 공의와 진리 위에 선 다수, 가장 민주적인 방법을 통한 자유라야 한다. <圭>

설날 연휴동안의 비상 연락

우리 교회 교역자들은 설날 연휴동안 성도들의 가정에 도움이 요청되는 일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당직 순서를 정하고 교회를 지키기로 했다. 유사시, 일차적으로 모든 사항은 교회로 통보하고 교구 담당 교역자들에게 알려 도움을 청할 수 있다.

교회 전화번호와 교역자들의 호출기 번호는 다음과 같다.

- 교회 ☎ 517 - 7651 ~ 5 (팩스 / 512 - 1225)
- 유순화: 012 - 217 - 3407
- 권상석: 012 - 291 - 8956
- 임진태: 012 - 217 - 3404
- 김재호: 012 - 291 - 8957
- 장용휘: 012 - 291 - 8958
- 원필현: 012 - 217 - 3405
- 최병호: 012 - 291 - 8959
- 김주아: 012 - 217 - 3406

교우동정

황선호 집사와 이순희 집사는 주식회사 화인전설을 창업하고 2월 1일(화)에 창업예배를 드렸다.

(주식회사 화인전설 ☎ 529 - 7373 ~ 4)

서울주간기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1. 교회당 신축을 위한 터전을 허락하소서
2. 성령과 말씀이 충만한 사도적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3. 우리 나라와 민족을 불의와 위협으로부터 지켜주옵소서
4.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70인전도대원을 모집하면서

가나안 안나가

김 재 호 (목사, 선교위원회 지도)

우리 예수님께서서는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현대 교회는 안 믿는 이들에게 단지 "와서 복음을 들으라"고 말로 주문만 하고 무한정으로 기다리고만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으로 나가지 않고 잃어버린 바 된 영혼들이 스스로 깨닫고 순순히 교회로 와서 무릎을 꿇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동안, 막상 와야할 그 영혼들은 세상의 부와 물질이 주는 순간의 기쁨을 최고의 행복이요 가치로 착각하면서 "교회에 한 번 나가 봅시다"라는 권면에 "안나가!"라는 답변으로 대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약속하신 쟁과 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보다 사단이 주도하여 잠시 후에 멸망받아 사라질 "안나가"가 더 좋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이들을 향하여 나가시렵니까?

"안나가"를 고집하고 있는 그들을 찾아가 "가나안"으로 인도할 복음의 일꾼들을 찾으시는 주님 앞에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답변한 이사야(사6:8)처럼 되시지 않으시렵니까?

지금 결단하시고 70인 전도단원으로 등록합시다. 복음의 일꾼으로서의 길을 자신있게 감당할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70인전도대원 및 기도후원자 모집

- 모집기간: 1994년 1월 30일 - 2월 20일 (4주간)
- 지원서 배부 및 접수처: 사무국 혹은 교구담당 교역자

1994년도 선교헌금작정 오늘 I, II, III 예배 헌금 시간에

오늘 I, II, III 예배 시에 94년도 선교헌금 작정을 한다. 주보에 삽입되어 있는 '선교회비작정 봉투'에 소속 교구와 다락방, 직분, 성명과 '94년 한 해 동안 매월 혹은 일시불로 바칠 금액을 작정, 기입하여 헌금시간에 제출하면 된다. 물질 뿐 아니라 기도와 관심으로 선교에 동참하자.

이종운 목사 방송설교

기독교방송(HLKX 837KHz) 「성경교실」 매주 화요일 오전 5시 35분 ~ 6시
극동방송(HLKX 1188KHz) 「나의 길 갈 길 다가도록」 매주 금요일 오전 9시 ~ 9시30분
아세아방송(HLAX 1566KHz) 「주일설교」 매 주일 오전 8시 ~ 8시 30분
「주일설교 재방송」 매주 화요일 오전 4시 10분 ~ 4시 50분

예배 및 집회

구 분	시 간
주일 예배	I 부 오전 9시
	II 부 오전 11시
	III 부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주일 오후 5시
수요 예배	I 부 오전 11시
	II 부 오후 7시
금요 기도 회	오후 9시
새 벽 기도 회	매일 새벽 5시 30분

교회위치

